

현존하는 모든 조선무기가 한자리에!

고창군 무장현 관아·읍성 출토 '비격진천뢰', 경남 진주·고창서 특별전시회 선보여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이 2차례에 걸쳐 '2019년 조선무기 특별전-비격진천뢰'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특별전은 비격진천뢰의 보존처리와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실에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2차 특별전은 10월 25일부터 본 출토지인 고창에서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 출토품 11점을 비롯해 보물 제800호로 지정된 창경궁(추정) 비격진천뢰, 장성(추정), 하동, 진주, 창녕 지역에서 발견·발굴된 비격진천뢰 등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비격진천뢰와 완구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전시한다. 기존 알려진 비격진천뢰는 보물 제800호 서울 창경궁 발견품 등 전국적으로 5점만이 전해졌으나, 지난해 전북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근고(추정) 일원 발굴조사에서 비격진천뢰 11점이 무더기로 출토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지난 1월 3일 국립진주박물관(임진왜란 전문박물관)과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은 업무협정을 맺고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에 대한 보존처리와 과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비격진천뢰의 컴퓨터 단층촬영(CT)과 감마선 투과 정비로 분석한 결과, 본체는 주조 기법으로 뚜껑은 단조 기법으로 제작했음을 파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불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심지 개를 뒀고, 아직 내부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화약이 들어 있



고창군과 국립진주박물관이 2차례에 걸쳐 '2019년 조선무기 특별전-비격진천뢰'를 진행한다.

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독창적인 최첨단 무기로 비밀병기, '귀신폭탄' 등으로 불렸으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비격진천뢰의 규격과 제작과정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특별전시회에서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의 과학조사 결과와 기존의 분석 결과를 종합했고, 새로이 밝혀낸 비격진천뢰의 제작 및 조립 과정도 영상과 3D프린트 복원품으로 상세히 소개한다.

여기에 새롭게 확인된 비격진천뢰 뚜껑(개철,

총鐵)의 형태와 잠금방식, 비격진천뢰 기벽(겉질) 두께에 숨겨진 폭발의 비밀, 3D스캔 실측 데이터와 문헌 속 정보의 비교 분석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여줄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비격진천뢰를 비롯한 다양한 조선무기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재조명하고,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을 배우고 과학기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월 25일부터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열리는 비격진천뢰 특별전에도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리조트 곳곳에서 '2019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눈과 귀가 즐거운 '썸머 페스티벌'

무주덕유산리조트, 퓨전 국악·K-POP 댄스 등 공연 '다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의 화려한 여름 축제 '2019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이 펼쳐진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약 한달 간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리조트 곳곳에서 '2019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비해 프로그램이 더욱 이색적이고 풍성하게 꾸며져 리조트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이벤트 광장, 원형 무대, 티볼 노천카페 등에서 MC 레크레이션, 퓨전국악, 7080 통타, 팝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여름밤에 심심하지 않도록 K-Pop 댄스 전자현악 등 대형 음악 페스티벌 부럽지 않은 공연도 펼쳐진다. 열정적인 공연

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열대야쯤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 토요일 밤 10시에는 불꽃놀이도 선보인다.

불거리는 밤 뿐만 아니다. 낮에도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 펼쳐진다. 토요일 낮에는 설천봉 야외무대에서 국악공연과 첼로 공연을 선보인다.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이처럼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가족들과 연인들이 즐기기에 적당하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화려한 공연으로 더욱 고조될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예총, '권삼득 명창에 관한 사실과 허구'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계 인사 등 130여명 참석

(사)한국예총 완주지회(이하 완주예총)가 완주출신 권삼득 명창을 재조명했다.

16일 완주예총은 최근 '복합문화지구 누에' 커뮤니티 실에서 '권삼득 명창에 관한 사실과 허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동원 완주군의회장, 완주군의원 그리고 김남곤 완주예총지부위원장, 국중하 완주예총 회장, 문화예술계 인사와 완주군민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동원 군산대학교 교수가 강연했으며 우리나라 판소리사의 초기에 판소리를 예술적으로 완성시킨 사람 가운데 한사람인 명창 권삼득을 조명했다.

설화 형식으로 전해오는 것들을 사실과 허구로 나누며, 어떤 것이 허구인지, 그리고 그 허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중하 회장은 "예술이란 사물의 모습이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로써 문학, 음악, 국악, 그림, 사진, 조각, 연극,



완주예총이 최근 '권삼득 명창에 관한 사실과 허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화, 연예, 무용 등을 말한다"고 사전에 명시돼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완주군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대한민국 으뜸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주민소득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 향상 또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과거 전통문화를 발굴 시키고 국창 권삼득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익산 가람문학관, 북큐레이션 '말모이' 기획전시 진행

조선어학회사건 33인 집중 조명

익산시 가람문학관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람문학관 북큐레이션 2019 '말모이'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북큐레이션은 가람 이병기 선생을 포함해 수난을 겪었던 조선어학회사건 33인에 대해 '우리말의 탄생'(최경봉), '민족의 말은 정신, 글은 생명'(이상규),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상각) 등 관련 책들을 통해 33인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이다. 기획전시와 함께 특별한 체험활동도 마련된다.

시조사전을 일컫는 '시조모이'는 코너에는 조선의 3대 시조집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와 함께 '고시조대전'(김홍규 외 6인 편저)과 '한국시조대사전'(박옥수 편저)을 펼쳐 놓음으로써 관람객들이 직접 시조를 찾아보며 한 수 적어갈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전 예약된 20인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관람객에게는 학예사가 직접 해설을 곁들이며 33인스티커 엽서 쓰기, 시조 읽고 쓰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장인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